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 위험노출도 점검

목 차

■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 위험노출도 점검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신흥국 하방리스크 요인	2
3.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 위험노출도 점검	4
4. 시사점	8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김 수 형 연 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 위험노출도 점검

■ 개 요

2016년까지 침체되어 있던 글로벌 경기는 2017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신흥국에 대한 하방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신흥국 위기발생 시 한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흥국의 위기발생 가능성 및 한국의 위험노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신흥국 하방리스크 요인

우선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및 테러로 인한 불안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될 경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은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신흥국은 통화가치 급락 및 자본금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상에 비해 부진할 경우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 위험노출도 점검

① 점검 방법

(점검대상 국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점검대상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베트남, 미얀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터키, 그리스,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로 26개국이다.

(점검 방법) IMF 위기판단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비율, 공공부채 비율, 경상수지 적자 비율, 단기부채/외환보유액의 5개 지표와 IMF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상의 기준치와 비교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IMF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 2개면 '중위험군', 1개면 '저위험군', 없으면 '안전군'으로 분류하고 각 위험군 국가에 대한 한국의 위험노출을 파악한다.

② 취약성 판단 결과

대만, 태국, 체코, 한국, 필리핀 등의 국가는 안전군으로 분류된 반면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 미얀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과다가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Fragile-5

로 분류되었던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은 2013년에 비해 취약요인이 개선
선을 보였으나 브라질, 남아공 등의 국가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 신흥국의 위기점검 결과(2016) >

위험군	국 가
고위험군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 미얀마, 아르헨티나
중위험군	인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저위험군	인도네시아, 헝가리, 칠레, 페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안전군	대만, 태국, 체코, 한국, 필리핀

자료 : IMF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정리.

주 : 위기판단지표상 IMF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 2
개면 '중위험군', 1개면 '저위험군', 없으면 '안전군'으로 분류.

③ 한국의 위험노출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수출 및 해외투자가 많아 실물 부문
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실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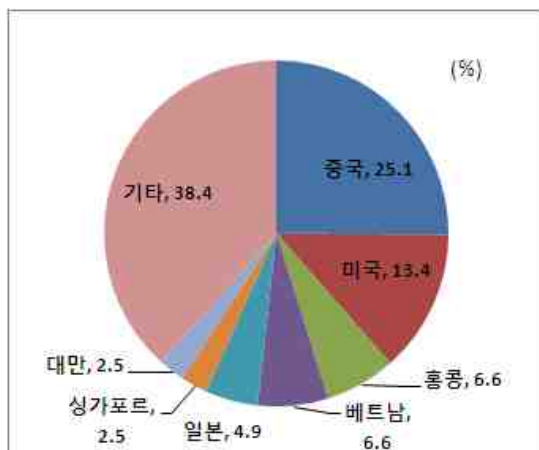
■ 시사점

첫째, 취약 신흥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선제
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세계경제 및 신흥국의 회복세를 기회요인으로 하여 수
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신흥국 투자에 대한 재점
검이 필요하다. **넷째**, 대외적 충격으로부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내수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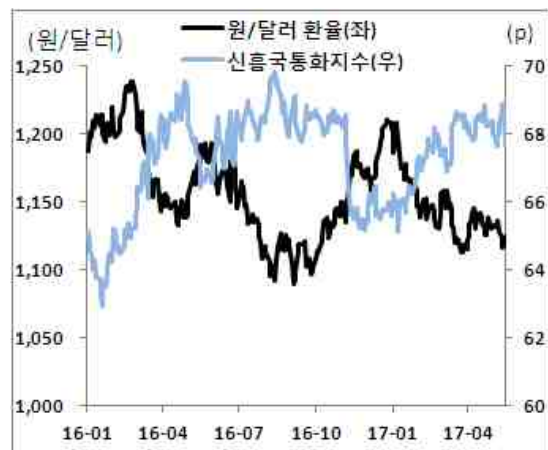
1. 개요

-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정책금리 추가 인상 등 신흥국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위험성이 존재
 - 2016년까지 침체되어 있던 글로벌 경기는 2017년을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침체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 또한 고용 및 소비 등의 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
 - 신흥국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신흥국에 대한 하방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신흥국 위기발생 시 한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신흥국 수출비중은 62.6%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흥국 위기발생 시 한국의 수출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신흥국 통화지수와 원화가치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 위기발생 시 한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도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신흥국의 위기발생 가능성 및 한국의 위험노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2016년) > < MSCI 신흥국 통화지수 및 원화 가치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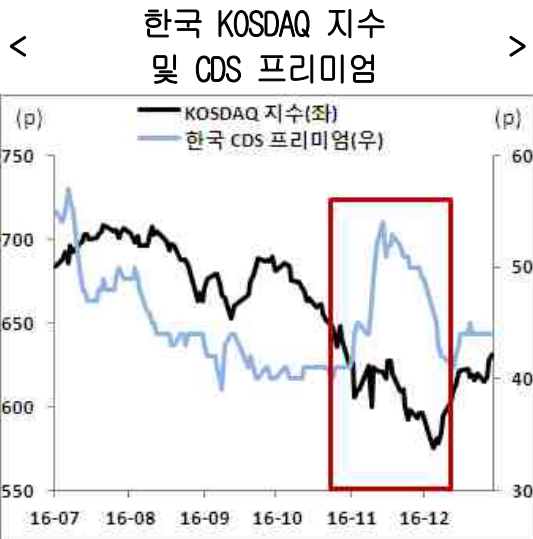
주 :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23개 신흥국 통화의 환율을 가중하여 산출되며 높을수록 신흥국 통화가치가 고평가됨을 의미.

2. 신흥국 하방리스크 요인

○ 정치적 리스크,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부진 가능성 등 세계경제 및 신흥국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위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및 테러로 인한 불안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가 확대될 경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은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2016년 한국의 사례로 보았을 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면서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금융시장이 회복을 보이는 패턴을 보임
- 최근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론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지수 하락 및 CDS 프리미엄 확대가 나타남
- 정치적 요인 외에도 테러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 한국은행.
주 : 박스 안은 10월 24일부터 12월 9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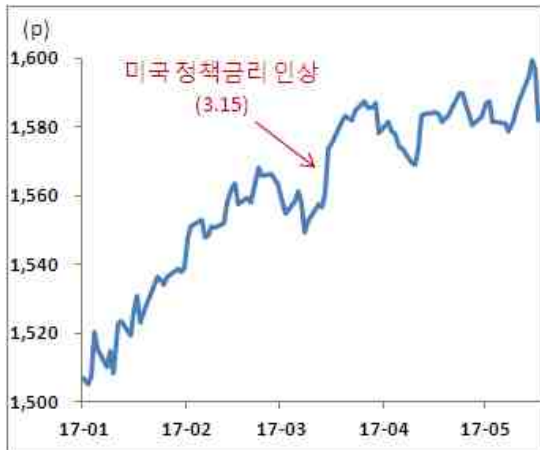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으로 신흥국은 통화가치 급락 및 자본급유출의 위험이 존재

- 미국 FRB는 2016년 12월에 이어 2017년 3월에도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며 연내 2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은 실업률이 안정을 보이고 내수의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최근의 미국 정책금리 인상(3.15)에도 신흥국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자본유입세가 확대되는 등 다소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신흥국은 통화가치 급락 및 자본급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타격
- OPEC의 원유 감산연장 합의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합의 이행 여부 불투명, OPEC 비회원 국가의 증산, 국제 원유 수요 부진 등으로 유가 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원자재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전망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국제유가의 상승 등이 전제되어 있음
 - 중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해왔으나 중국의 금융규제, 과잉공급 조정 등으로 인한 수요 급감 우려로 2017년 이후 CRB 지수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제유가 또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함
 -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은 주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진은 신흥국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MSCI 신흥국 지수 >



자료 : 한국은행.
주 : MSCI 신흥국 지수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23개 신흥국에 대한 주가 지수.

< CRB 지수 및 국제유가 >



자료 : Bloomberg.
주1) CRB지수는 곡물, 원유, 산업용 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19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2) 국제유가는 WTI 기준.

3. 신흥국 취약성과 한국 위험노출도 점검

○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국가를 중심으로 IMF 위기판단지표를 기준으로 점검

- (점검대상 국가) MSCI 신흥국 지수¹⁾에 편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
 -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베트남, 미얀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터키, 그리스,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²⁾
- (점검 방법) 점검대상 국가에 대해 IMF 위기판단지표³⁾를 기준으로 점검
 -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비율, 공공부채 비율, 경상수지 적자 비율, 단기부채/외환보유액 등의 지표를 통해 판단함
 - IMF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상의 기준치와 비교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함
 - IMF(1999)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 필리핀, 태국 등은 1996년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가 취약했으며 특히 태국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적자비중 등의 측면에서 취약했음
 - 위기판단지표상 IMF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 2개면 '중위험군', 1개면 '저위험군', 없으면 '안전군'으로 분류함
 - 위험군 국가에 대한 실물 및 금융 부문에서 한국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

< IMF 위기판단지표 >

항목	실물부문				금융부문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GDP	정부부채 /GDP	경상수지 /GDP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기준치	5%	-2%	50%	-5%	100%

자료 : IMF(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주 : 물가상승률은 연간상승률을 의미하여 이외 지표는 특정 시점에서의 비중을 의미.

1) MSCI 신흥국 지수 : 신흥국 주식 및 외환시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에서 고안한 지수로, 2017년 5월 현재 한국, 중국 등 23개국 국가가 포함됨.

2)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베트남, 미얀마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했으며 중국은 경제규모가 월등히 크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커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성을 지니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3) IMF(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의 신흥국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 신흥국 위기판단 결과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과다가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비율은 분석 대상국 대부분 안정적이며 IMF 기준치를 만족시킴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또한 대부분 IMF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그리스의 경우 2,077%로 대외채무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
 - 취약국가들은 주로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비율에서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신흥국의 재정악화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을 포함한 대만, 태국 등의 국가는 본 연구에서의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 안전군으로 분류됨
-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취약성이 개선된 반면 중남미 국가는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악화
 - 과거 취약성이 부각되어 Fragile-5로 분류되었던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는 인플레이션을 하락, 단기외채/외환보유액 개선 등 취약요인이 과거4)에 비해 다소 개선을 보임
 - 반면 브라질, 남아공 등의 국가는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에서 여전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신흥국의 위기점검 결과(2016)5) >

위험군	국 가
고위험군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 미얀마, 아르헨티나
중위험군	인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저위험군	인도네시아, 헝가리, 칠레, 페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안전군	대만, 태국, 체코, 한국, 필리핀

자료 : IMF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정리.

주 : 위기판단지표상 IMF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 2개면 '중위험군', 1개면 '저위험군', 없으면 '안전군'으로 분류.

4)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점검」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위기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에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는 '최고위험군'(본 연구의 고위험군에 해당)으로 분류되었음.
 5) 최근 Moody's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재정수지/GDP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IMF 기준치를 만족시켜 본 연구의 분류상에서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됨.

< 주요 신흥국의 위기점검 결과(2016년) >

	기준치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안전군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	미얀마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헝가리	칠레	페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대만	태국	체코	한국	필리핀	
거시경제	경제성장률	-	2.3	-3.6	0.3	4.3	6.3	-2.3	6.8	2.9	6.2	4.2	2.8	0.0	-0.2	2.3	2.0	5.0	2.0	1.6	3.9	2.7	2.7	1.4	3.2	2.4	2.8	6.8
	물가상승률	5	12.4	6.3	6.7	14.0	8.3	-	4.9	8.5	4.7	1.8	0.8	0.3	5.4	3.4	5.7	3.0	1.8	2.8	3.2	1.8	2.7	1.7	1.1	2.0	1.3	2.6
	재정수지/GDP	-2	-2.2	-9.0	-3.5	-12.0	-4.6	-5.8	-6.6	-2.3	-6.6	-3.0	-2.4	0.0	-3.7	-2.9	-3.4	-2.5	-1.8	-2.9	-2.3	-3.9	-3.4	-1.6	0.5	0.2	0.3	-0.4
	정부부채/GDP	50	81.2	78.3	50.5	97.1	35.8	51.3	69.5	29.1	62.4	56.3	54.2	181	17.0	58.1	47.6	27.9	74.2	21.2	24.8	19.3	47.6	35.4	42.2	37.7	38.6	33.7
	경상수지/GDP	-5	-3.6	-1.3	-3.3	-5.6	-6.5	-2.6	-0.9	-3.8	4.7	2.0	-0.3	-0.6	1.7	-2.7	-4.4	-1.8	4.3	-1.4	-2.8	2.4	-2.2	14.2	11.4	1.1	7.0	0.2
	금융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00	102	15.4	62.7	39.1	-	110	21.7	92.2	-	86.5	44.4	2077	11.1	-	21.6	36.1	52.2	19.2	12.7	-	-	-	26.1	57.8	28.3

자료 : IMF, 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정리.

주1) 빨간 음영이 있는 칸은 IMF 기준치보다 높아 취약한 항목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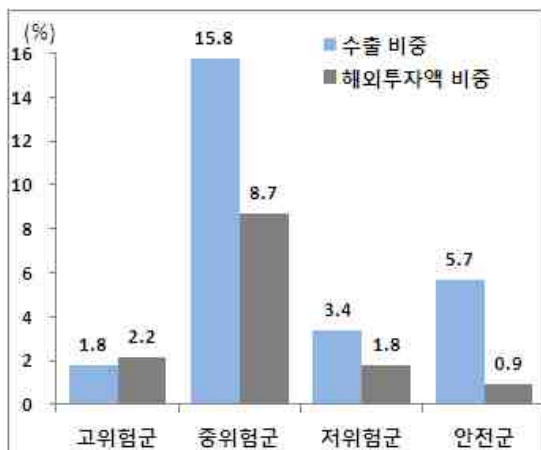
주2) 위기판단지표상 IMF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 2개면 '중위험군', 1개면 '저위험군', 없으면 '안전군'으로 분류.

주3) 실문부문의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4), 금융부문 중 단기외채는 World Bank Quarterly External Debt Statistics, 외환보유액은 IMF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자료를 사용.

주4)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 자료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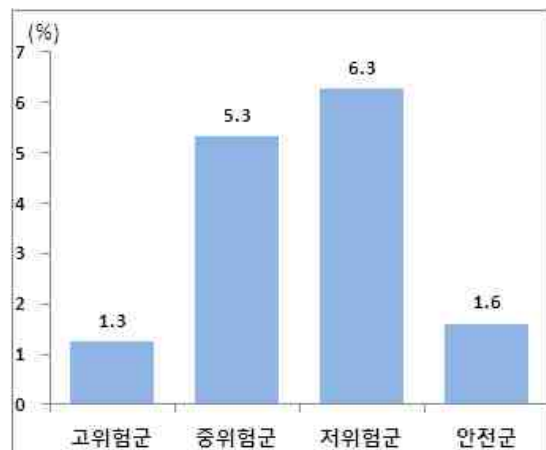
- (한국의 위험노출) 한국은 금융 부문보다는 실물 부문에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량이 많은 인도, 베트남 등의 취약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실물 부문) 수출 및 투자 비중으로는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로 다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고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높지는 않으나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의 무역량이 많은 인도,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이 중위험군에 속하여 이들 국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음
 - (금융 부문) 국내 은행의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에 대한 자산 비중은 6.6%로 금융 부문의 위험은 실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
 - 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가는 주로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가 낮아 금융 부문에서의 위험 노출은 높지 않음
 -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에 비해 저위험군 및 안전군에 대한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 부문 위험은 실물 부문 위험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위험군별 수출 및 해외투자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주 : 2016년 전체 수출액 및 전체 해외투자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

< 국내 은행의 위험군별 대외자산 비중 >



자료 : BIS.
 주) 2016년 말 국내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각 국가에 대한 대외자산의 비중.
 2) 부채를 수반하는 금융자산(claim) 기준.

4. 시사점

첫째, 취약 신흥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대외의존도와 외환보유고 확충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에서 지속 운용
 -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국가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외환보유액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금융·통화정책 공조 등을 통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야 함
 - 스왑 체결, 역내 금융안전망 등 유동성 공급장치는 위기 발생 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있어 효과적임
- 한국은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취약 신흥국으로부터 위기 전염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며 위기상황이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의 전염을 최소화해야 함
- 특히 주요국 통화긴축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개별국가의 정치 불안, 테러 등 신흥국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둘째, 세계경제 및 신흥국의 회복세를 기회요인으로 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양호한 국가 위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도하여 위험을 분산

- 특히 위험성이 낮으면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신흥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 대외 취약성 노출을 축소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정부는 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 완화, 정보 제공,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시행
 - FTA 등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외 진출의 장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외교부, KOTRA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신흥국 진출을 지원해야 함
- 기업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함
 - 산업 차원에서 기술 융합, 수출시장 모색 등을 주도하고 개별 기업에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류 마케팅을 활용하는 등의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방안을 모색

셋째, 신흥국 투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 경기회복세 및 취약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이 안정적이고 성장세가 높은 국가 위주로 재편하여 위험노출을 최소화해야 함
- 기존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흥국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며 신규 투자 시에는 신흥국의 기회요인과 더불어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생산시설을 취약성이 낮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위험을 낮추는 한편 신시장을 개척
 -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주로 저임금의 생산기지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소득의 확대로 소비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넷째, 대외적 충격으로부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내수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이로 인해 대외적 충격에 취약함
 - 수출 진흥과 함께 국내소비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를 추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의 회복을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수출 경기의 회복이 내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생활비 부담 절감,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충해야 함 **HRI**

김수형 연구원 (2072-6217, soohyung@hri.co.kr)